

구의원 고압적 현안질의에 뿔난 복구 공무원들

노벨문학상 기념 '공상의 방' 추진 놓고 의원들 욕박지르기 태도 성토 "의원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하소연... 공무원노조, 릴레이 시위 준비

광주시 복구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의 고압적 태도와 욕박지르기식 의정활동에 항의하는 릴레이 시위를 준비중이다. 최근 광주복구의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두고 복구 공무원들 사이에서 "약성민원보다 복구 의원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복구지부는 이번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의원들 간의 상호존중이 되지 않았다는 공무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집행부 차원의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항의와 민원이 이어지면 의원실 앞에서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만 항의신호가 충분하지 않으면 계획을 접을 수도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 18일 열린 광주 복구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의가 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의는 2019년 2월 제250

회 본회의 이후 5년 만이다. 의원들은 복구가 중흥도서관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해 조성하는 '공상의 방' (11월 7일자 광주일보 2면)에 대해 복구의원들이 '소통 부재'와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기대서(가 선거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미용(가 선거구)의원은 긴급현안 질의에서 공상의 방 조성에 들어가는 1억8000만원 예산에 대한 제3차 추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가 설계역을 우선 진행한 점을 두고 소통 부재와 의회 경시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문인 복구정장에게 "애초 공상의 방 사업 장소가 한강 작가의 모교인 효동초로 알고 있는

데 왜 효동초도서관으로 바뀌었냐"고 물었다. 문정장은 "애초 계획은 한강 작가의 생가터였으나 감정가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적 집행이 어렵고 생가 관련 사업은 광주시에서 추진한다고 해 효동초로 부지를 바꾸었고 착수가 늦어진다고 해 중흥 도서관으로 계획을 틀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문인 정장) 혼자만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 하지 마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계획했던 대로 효동초 내에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효동초 사업을 폐기하고 복구 예산만 들여 단독행사를 기획한 것은 한강 작가 마케팅을 이용해 정장 본인만의 정치적 결과물을 내기 위한 의도는 단 하나도 없었

나"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복구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날 복구 공무원들 내부 게시판에는 "사전 설명이 법령으로 규정돼 있으나, 절차대로 심의해서 예산 안 세워주면 그만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약성 민원보다 의회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요, 욕박지르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무원만 죽어나간다. 일일이 모두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편, 20일 진행된 복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3차 추경심사에서 '공상의 방' 추경예산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액 삭감됐다.

/김디자인 기자 kdi@kwangju.co.kr

서구, 평생학습 브랜드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 첫 졸업생 배출

수업 이수 19명에 학사학위증 수여 학습 성과 주민과 공유 프로그램도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세큰대)'에서 첫 졸업생 19명을 배출했다.

20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 들불출에서 제1회 세큰대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진> 세큰대는 서구 전역을 하나의 커다란 대학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마련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8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올해 총 181개의 강좌를 운영, 3071명이 참여했다.

출발 1년을 맞이한 세큰대는 올해 전공수업 40시간과 교양수업 60시간을 이수한 19명의 주민에게 명예시민학사 학위증을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통해 쌓아온 배움의 성과를 기념하며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큰대 총장인 김이강 서구청장은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졸업은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다"며 "세큰대에서 얻은 지식과 배움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며 나아가 이웃과 배움을 나누는 착한 서구민이 되어 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졸업생 중 한 명은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바른몸 만들기 강좌를 듣고 건강을 되찾았다"며 "정리수납전문가 양성 과정을 듣는 등 취업에도 도



움이 되는 전공과정을 들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졸업의 소감을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세큰대의 학습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구강좌인 시니어모델 수강생의 패션쇼를 시작으로 드레스룸, 토키타교실, 오카리나 앙상블, 성악 클래스 등 수강생의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또 세큰대 정구강좌, 방학특강, 런투유 학습모임 등을 통해 배운 캘리그래피, 원예, 서예, 수채화 등 총 18팀이 준비한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고, 동 캠퍼스별 테마로 꾸며진 네일아트, 차 시음 등 체험부스는 수료생들이 직접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과 자기실현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발전과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는 이러한 평생학습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실현해 나가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 단체와 개인들의 재능 기부도 이어졌다. 로브드마리에(대표 김영학), 미용사협회(협회장 강순자), 광주보건대학교 뷰티케어학과(김해선 교수)에서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을 지원해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루미에르스튜디오(대표 정훈조)에서는 기념 사진 촬영을 도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동구, 22일 '인문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올 한해 광주시 동구 인문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2024년 인문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2024년 인문동아리 지원사업'은 주민 인문 역량 제고와 인문 정신 확산을 위해 동구가 5년째 추진

하고 있는 역점사업이다.

올해는 41개 동아리 325명이 학습모임을 운영하며 인문 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아리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올해 1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인문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불어 성장해 가는 인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

견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아리 사례발표회를 통한 자체평가, 참여자들의 소감 공유, 학습 과정에서 도출된 독서토론일지·문집·어반스케치 작품전시·낭독공연 등 개별 동아리들의 향후 계획 공유 등이다.

특히 올해는 인문 학습 동아리들이 신춘문에 당선(봄날의시), 미술대전 입선(한시바람), 시낭송대회 수상(마음토타독) 등의 결실을 맺었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소상공인 안정적 지원 사무국 인력·공간 필요"

광산구의회, 정책간담회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고불가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0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선(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원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광산구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오방용 광산구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

통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을 활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인력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합회 사무장이 소상공인과 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골목상권을 들여다보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남구, 광주 유일 '심뇌혈관 질환 예방'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남구가 지역민들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2024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 5개 지자체 중 유일하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사업 지원과 우수사례 발굴 차원에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보인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 10개 가운데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까지 심뇌혈관 질환이 주요 원인의 4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성과평가의 지표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비롯해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 합병증 예방관리 실적까지 다양하다.

남구는 올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경로당 등지에서 찾아가는 무료 검진관을 8차례 운영하며 주민 1010여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집중 관리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기혈관 숫자 알기 및 적극적인 검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각 증상이 없는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까지 유도한 점이 호평받았다는 것이 남구의 분석이다.

또 사회·경제 활동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직장인을 대상으로도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건강상담을 진행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에도 힘쓴 점도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모바일 건강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의료 전문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만성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해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